

오피니언

특별기고

광주가 아름답다



황영숙

광주시립미술관이 올해 개관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서구의 주요 미술관에 비하면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립미술관은 1992년 국내 공립미술관 중 처음으로 개관하여 그동안 광주비엔날레 창설과 발전, 그리고 지역 문화는 물론 지역사회와 소통을 넓혀가면서 지역작가 발굴과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시립미술관은 2007년 중외공원 신축미술관으로 이전하면서 미술관 주요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인해 연 5만여 명에 그쳤던 관람객은 지난해 말에는 23만여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연 10여 개 강좌에 불과했던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은 170여 개 강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광주시민이며 사랑받는 미술관이 되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지역미술관은 지역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가치여야 합니다. 만약 지역민에게 외면받는다면 미술관은 예술작품 공동묘지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술관 운영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방문객에게 두고 있습니다.

개관 20주년을 맞은 시립미술관은 시민과 함께하면서 지역의 사회교육기관으로 지역문화를 연구하고 마케팅하는 문화전진기자로 성숙된 모습과 활동을 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미술관 개관 당시, 미술관 등록에 필요한 최소의 작품마저 확보되지 않아 지역원로, 중견작가들을 중심으로 기꺼이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고 '수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국의 주요 작가들을 찾았습니다. 작품기증을 요청했을 때를 회상하면 가슴이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정웅(광주시립미술관 명예관장) 선생님은 4차례 거쳐 2222점의 작품기증하면서 시립미술관 소장작품의 질적, 양적 성과를 높이는데 큰 뜻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강운태 시장께서는 하정웅 선생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중외공원 내 도로를 '하정웅로'로의 명명식을 갖는 바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국제적인 활동은 2003년 뉴욕의 '퀸스미술관'을 시작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의 대표적인 미술관들과 교류를 하였고 현재는 중국 북경의 '금일미술관'과 광주비엔날레 기간에 교류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활동에는 광주비엔날레가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지역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육성을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창작스튜디오를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현재는 중국 북경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역작가를 중국 미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100여명의 지역작가를 배출하였으며, 이중 상당수는 국제적인 작가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의 활동은 전국 공립미술관의 부러움과 레벨로 타 지역 미술인들은 광주로 이사오고 싶다고 합니다.